

명학성당 리노베이션

MyeongHak Catholic Church Renovation

‘때르르릉~’

한 통의 전화를 받자, 낮 익지 않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드디어 통화가 되었다는 반가움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소식이 서로 없었던 신부님이었다.

만나자는 제의에 그 동안의 소식보다도 우선, 그 분은 4개월 동안이나 나를 찾아 다녔다는 이야기와 지금 현실적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으로 급히 찾아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본당신부로 새로 맡은 성당에 관한 고충이었다. 즉 건축주의 요구사항인 셈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과거 안양시내의 이 성당은 2만 여명의 신도가 있어서 상당히 큰 성당이었으나, 주변 신도시의 건설로서 그 곳에 새로운 성당이 생김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많은 작은 실들과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약 30년 전에, 말하자면 건축계획과 도면도 없이 시공자가 건축주의 의견만으로 건축되어서 구조적, 설비적, 기능적인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축을 하려고 하니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예산과 공사기간 동안의 성당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을 나는 리노베이션으로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로 하였다.

하나씩 해결 하기 위한 수술의 방법으로,

첫째, 많은 불필요한 실(본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들이 외벽에 접하지 않고 내부에 묻혀있음)들을 현실에 맞게 새로운 통합적 기능으로 모으고, 이들 모두는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해 외부에 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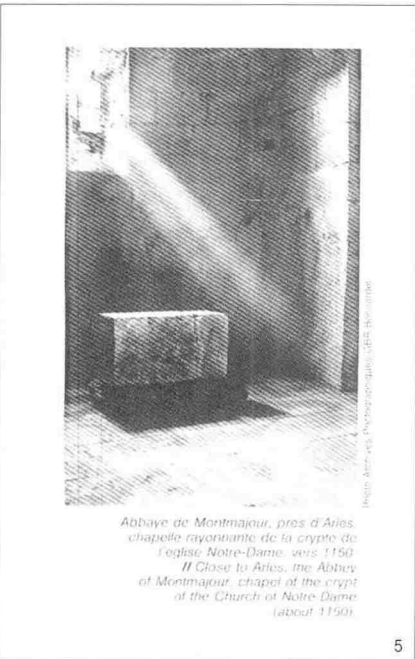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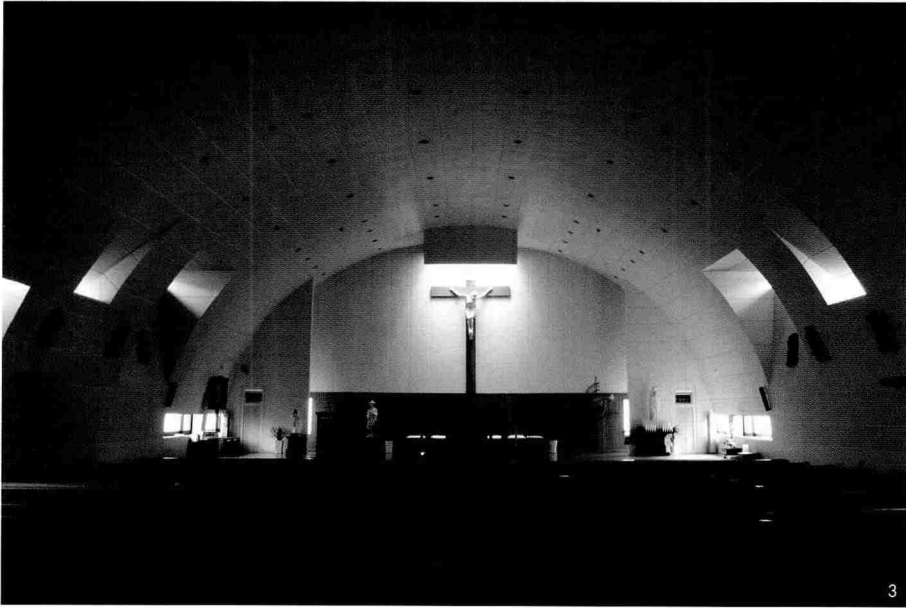
둘째, 지하층의 넓은 다목적실은 바닥의 방수처리 과정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다 보니 층고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다목적실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그 상부바닥(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층 바닥)을 없애어 2개 층의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이공사는 구조적 문제로 상당히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 그 바닥은 빨레뜨를 깔아 방수문제를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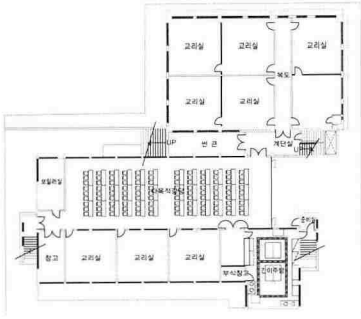
명학성당 변경 전 전경



명학성당 변경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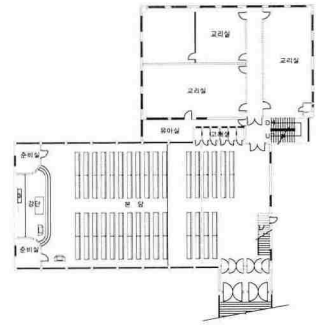
1_ 명학성당 변경 전 본당 3_ 명학성당 변경 후 본당 5_ 정적의 창
 2_ 명학성당 변경 전 본당 창 4_ 명학성당 변경 후 본당 창 6_ 명학성당 변경 후 십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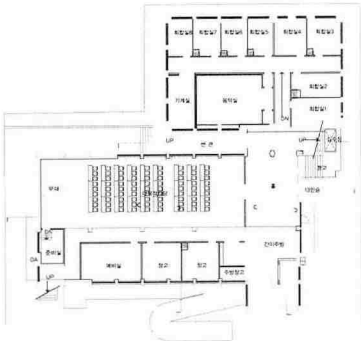
변경 전 지하 1층 평면도



변경 전 1층 평면도



변경 전 2층 평면도



변경 후 지하 1층 평면도



변경 후 1층 평면도



변경 후 2층 평면도

셋째, 사용자를 가장 고층스럽게하는 단열은, 처음 구상은 내 단열을 하여 기존 facade를 보존 하려 했으나 내부의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건축주의 의견(기존의 본당 쪽을 유지해야 함)으로, 외 단열로 하고 경제적 재료로서 공사비를 최소화 하였다. 리노베이션 작업에서 나는 항상 기존의 지나온 시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둔다.

넷째, 기존 본당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내부 장식을 최소화 시키고 자연의 빛 연출로만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공간을 극대화 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① 기존의 철골트러스에 경량철골을 아취구조로 매달아 전체적 볼트구조를 하여, 본당의 음향을 고려한 구조체는 자연스럽게 서로다른 두께의 외벽 만들고, ② 깊은 곳에서 떨어지는 빛의 효과로서 공간의 성스러움을 최대화 하였다(천창, 벽 두께에 의한 각각 다른 깊이와 밝기를 주는 외벽 창). 깊은 빛은 항상 정적의 깊이를 가중시킨다.

다섯째, 직접 2층 본당으로 통하는 기존의 주 계단은 외부에 있어 상당한 안전의 문제도 있었지만, 외부(일상공간)에서 전이적 과정 없이 너무 급격히 내부(종교공간)로 진입하는 공간충돌의 문제를, 1층에 로비를 두어 우선 외부와 내부의 완충적 전이적 공간인 평면적 넓이를 두고, 이는 새로 만든 내부의 주 계단을 통해 본당으로 진입하게 선(line)적 깊이를 두었다.

여기서 주 계단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 개념으로 계단 하부와 상부가 동일한 형태로 하여 끝이 없이 보여지게 하였다.

여섯째, 1층 로비와 2층 본당의 주 진입홀 부분, 1층 교리 실 복도의 채광은 남쪽의 벽을 없애어 최대한 자연광을 끌어 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양의 빛은 본당으로는 유입되지 않게 하였다.

일곱째, 사용시간대가 서로 다른 각각의 실들은 개별적 냉난방을 하고, 본당 냉난방의 열원은 가스(gas)를 사용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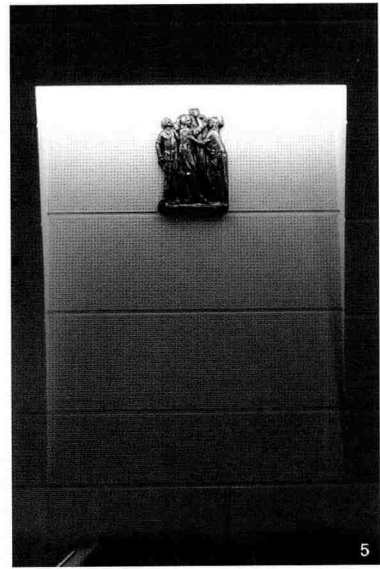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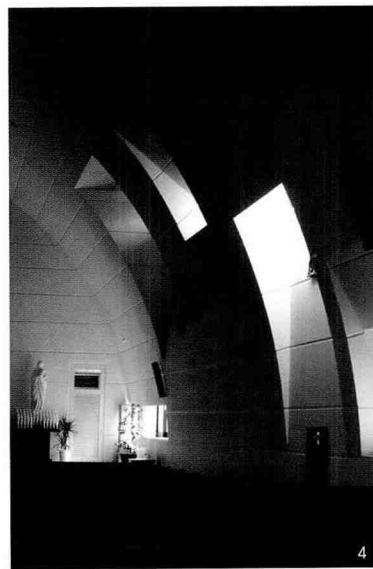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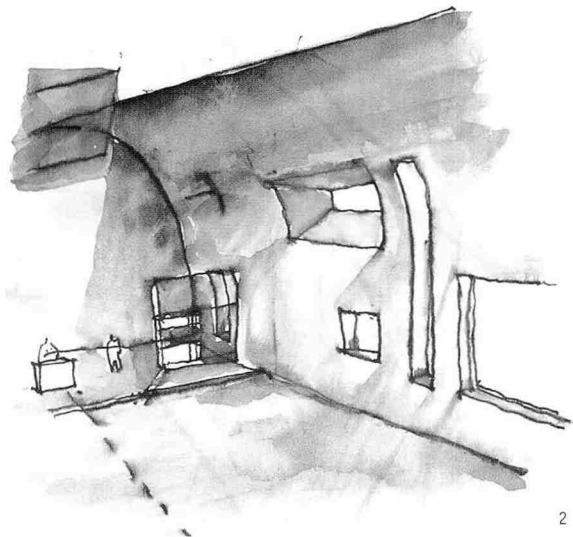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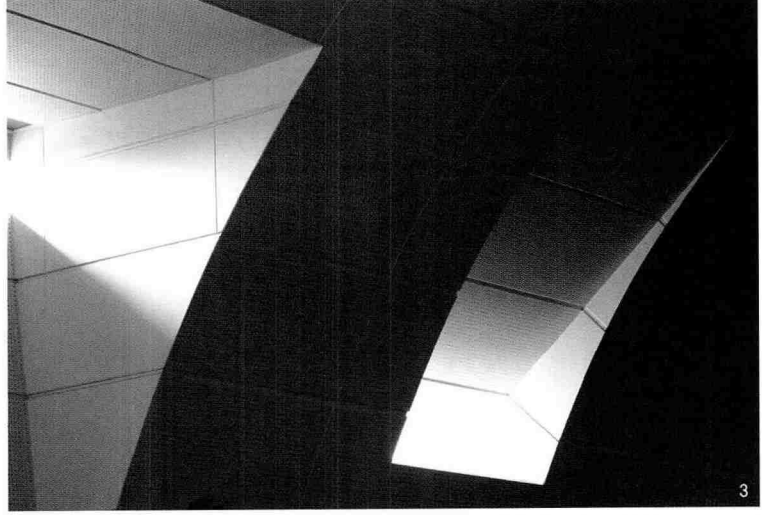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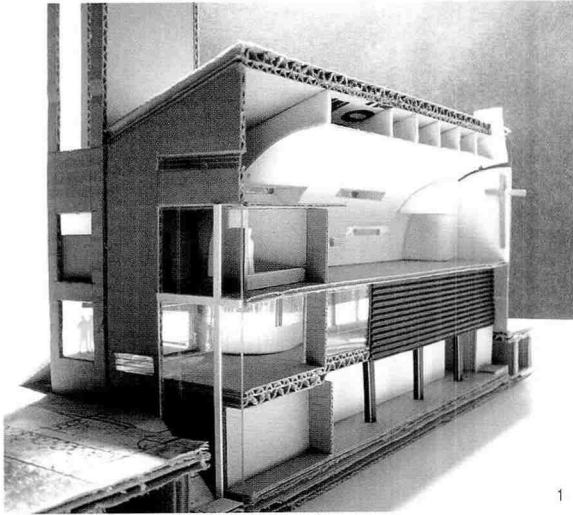
여덟째, 수평적으로 접해 있어 독립된 기능이 어려웠던 사제관, 수녀원, 본당, 교육관 등을 수직적으로 두어 기능의 독립성을 가지게 하고, 이들을 잇는 동선은 다시 본당으로 수렴되게 유도하여 서로 관계성을 지니게 하였다.

상기 나열한 여러 가지의 수술방법으로 많은 수정을 통하여 리노베이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열악한 공사비로 많은 재료를 직접 설계 제작에 관여하게 되었다. 대표적 예로는 본당내부의 흡음판 마감이 그것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공사 후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신속 공사비의 50%(약 15억 원)로서 성당이 갖추어야 할 건축적, 기능적 인을 면을 만족시킨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탈리아 그레고레안 성가대를 초청한, 본당에서의 공연은 건축주를 한층 더 만족감으로 끌고 가게 하였다. ■



1_명학성당 모형 3_명학성당 빛세상1 5_명학성당 빛세상2
2_명학성당 스케치 4_명학성당 분당 동쪽

설계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대지면적 2,070㎡
 연면적 2,6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담당 배순남, 백지순, 안병현
 설비 우진 설비
 전기 한양 Eng
 구조 광림구조
 시공사 지산건설
 건축주 수원교구청
 공사완료 2003. 10

